

작업치료 임상실습 학생들이 경험한 고시원 생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황상희*, 전병진**, 최정실***

*가톨릭상지대학 작업치료과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주성대학 작업치료과

국문초록

목적 : 임상실습 과정에서 병원의 일과가 끝난 후에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험은 실습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시원의 일상에 대한 연구는 임상실습 학생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작업치료 임상실습 학생들의 고시원 생활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연구방법 : 참여자는 작업치료 임상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 5명에게 심층인터뷰를 3~4회 실시하였다. 이들이 임상실습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들을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기간은 2008년 10월에서부터 2009년 1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자발성 및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처리, 면담 내용의 메모, 녹음 등 기록에 대해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수집 및 분석은 지오르기의 4가지의 구체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결과 : 연구결과는 86개의 의미단위, 14개의 하위 구성요소, 6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으며, 작업치료 학생들이 낮설고 삭막한 고시원에서의 생존에 대한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좁은 고시원 공간의 버거움’, ‘공동생활의 어려움’,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함’, ‘가족의 사랑으로 힘을 얻음’, ‘공동생활에서 생존전략을 터득함’, ‘낮선 생활에서 생존전략을 터득함’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작업치료 임상실습생들은 고시원에서 생존을 위한 나름의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고시원, 생존전략, 작업치료 임상실습, 지오르기

I. 서론

임상실습교육은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으로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바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이다(Dunn & Cand, 1988).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이론적 지식과 실기수행능력을 하나로 통합

하고 현장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임상실습교육은 전공과 관련된 기관의 현황 및 미래 전망을 파악하게 하여 진로결정에 도움이 된다(이향숙 등, 2010; 최미경 등, 2004). 이러한 임상실습교육을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상실습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김남행, 2006),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최진숙, 2005).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기존

의 임상실습 관련 연구들은 임상실습 교육기관의 현황과 악 및 실습내용, 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하거나 임상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초점을 두어 교육기관과 임상실습기관이 향후 이상적인 임상실습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김영숙, 2000; 김진경과 강대혁, 2004; 김진경, 박소연, 이택영과 강대혁, 2004; 김혜숙, 2002; 신경림, 1996; 이향숙, 2007).

작업치료에서 필수적인 임상실습은 현재 실습기관의 수에 비해 급증하는 학생 수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임상실습을 하기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다(이미자 등, 2004). 하지만 임상실습 학생들은 실습환경과 보건의료시스템이 좀 더 잘 구축된 수도권에서 실습하기를 선호한다. 이는 졸업 후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실습기관의 선택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학생과 부모는 낮은 곳이 불안하지만 좋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 가야하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수도권으로 지원하게 된다. 수도권 지역에 친인척이 없는 경우 단기간 교육을 받기 위해 임시 주거공간으로 고시원을 이용하게 된다.

고시원은 오랫동안 사법, 행정, 기술고시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젊은 독신 직장인들이 전셋집을 얻기에 부담스럽고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기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임시주거 공간으로 고시원을 찾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시원은 학습공간에서 거주공간으로 그 사용과 목적이 변형되어 버렸다. 또한 도시의 빈곤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당장 식사는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이종원, 2009). 이런 고시원을 이용하는 집단은 크게 세 분류로 나뉘볼 수 있다(정원오, 남기철과 장기성, 2004). 첫 번째 집단은 수험생이고, 두 번째 집단은 젊은 독신 직장인이고, 세 번째 집단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그리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등의 도시빈곤층이다. 즉 고시원은 도시 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며 수험생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장소이지만 도시빈곤층에게는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장소가 된다.

현재 고시원은 일부 전통적인 빈곤층으로 인식되어 왔던 집단과 노동빈곤층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단신 가구 형태를 보이는 도시빈곤층의 불안정한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이정봉, 2006). 도시빈곤층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공

간이 쪽방인데, 쪽방의 형성과정 중에서 고시원이 쪽방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다(하성규 등, 2005). 대부분의 고시원이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월세로만 지불하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빈곤층이 쉽게 주거공간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고시원이 급격하게 주거시설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다른 쪽방에 비해서 고시원이 선호되는 이유는 화장실이나 욕실, 식사시설 등의 공동시설이 기존의 노후화된 쪽방 밀집지역에 비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업치료 임상실습 학생들은 기존의 이용자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시원 생활은 살아가기 위한 주거공간이 아닌 단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임시 공간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하지만 작업치료 학생들은 평가를 받는 임상실습이라는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함께 익숙하지 않은 공간과 상황 속에서 낮은 사람들과 살면서 중요한 임상실습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 방향 설정과 안전한 지도체계 구축을 위하여 임상실습지에서의 경험이 아닌 일상생활 공간인 고시원 생활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사실 그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고시원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시원의 공간적인 특성을 조사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이창효와 이승일, 2010), 이런 공간적 특성이 화재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안전성에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들이다(김진호, 양정훈과 석호태, 2009; 이종원, 2009; 이종원, 이호영과 홍원화, 2009). 두 번째는 고시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정원오, 남기철과 장기성, 2004),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도시빈곤층에 대한 연구로서 빈곤형성과 재생산을 알아보고(이정봉, 2006), 도시빈곤층에게 쪽방이라는 공간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가 있다(김미령, 2008; 하성규, 2007; 허소영, 2010). 근래에는 잇단 고시원 화재 사고로 인하여 고시원의 건축구조의 문제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시원과 관련된 양적·질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현상의 본질적인 모습과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 작업치료 임상실습 학생들이 경험하는 고시원 생활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향후 임상실습 지도를 할 때 임상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인

표 1. 연구 질문에 대한 인터뷰 질문들

연구 질문	인터뷰 질문
“작업치료 임상실습 학생들의 고시원 생활 경험은 어떠한가?”	1. 고시원의 환경적인 요소는 어떠했습니까?
	2. 고시원에서 닳신 사람과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3. 고시원에서 자신만의 적응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N=5)

	이름	연령	성별	학년	취직경험 유무	실습기관	고시원의 일반적인 정보			
							지역	크기(평)	사용자(명)	기간(개월)
1	함○○	25	남	4	유	대학병원	수도권	25	1	4
2	정○○	25	남	4	무	대학병원	수도권	2	1	4
3	김○○	23	여	4	무	대학병원	수도권	3	1	4
4	유○○	22	여	3	유	대학병원	수도권	2	1	2
5	김○○	22	여	3	유	대학병원	수도권	2	1	2

부분만이 아니라 생활적인 면도 고려하여 실습생들이 안전하게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임상실습 지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 질문은 “작업치료 임상실습 학생들의 고시원 생활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터뷰 질문은 다음 표 1과 같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임상실습 학생들의 고시원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구 대상이 된 임상실습 학생들이 경험하는 고시원에서의 개인적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Creswell(1998)은 참여자 자신의 의식적인 경험들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개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접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추출은 고시원 생활에 대한 적절성이 충족될 수 있는 목적표집을 실시하여 총 5명을 선출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자 1과 2 그리고 3은 4학년이고 참여자 4와 5는 3학년이었다. 참여자 1과 2는 군대를

제대한 남학생이고 나머지는 휴학 없이 학교를 다닌 여학생들이었다(표 2). 이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사건이나 생활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적극적인 학생으로 본 연구의 취지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료의 충분함을 확보하고 고시원 생활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원자료를 수집하였다(Morse & Fields, 1995).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참여자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면담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최소 3회~최대 4회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집은 2008년 10월에서부터 2009년 1월까지 이루어졌다.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Giorgi(2002)가 제시한 ‘과학적 현상학’에 근거하여 4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지오르기의 분석 단계에 따라 연구 참여자와 면접과정을 녹음한 자료를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진술문을 3인의 연구자가 각자 2~3차례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충분하게 자료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참여자가 경험한 의미를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의 입장에서 감정입을 시도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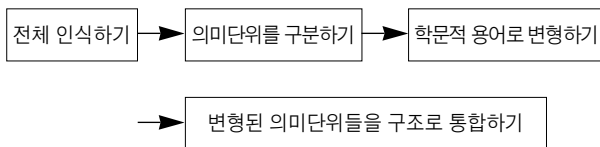


그림 1. 지오르기의 과학적 현상학에서 따라야 하는 단계들

자신의 편견과 지식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2단계는 임상실습 학생들의 고시원에서의 경험을 밝히기 위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의미전환이 이루어진 부분을 의미단위로 파악하여 구분하였다. 의미단위를 구분하기 위한 과정으로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의미 변경이 있는 곳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3단계는 이러한 의미단위를 사례별로 정리한 후 5명의 전체 연구 참여자들로 부터 나온 의미단위들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중복되는 내용의 의미단위이거나 지나치게 개별적인 상황에 근거한 의미단위를 제외하여 26개 의미단위를 정리하였다. 이를 근거로 연구자는 구성된 범주의 의미들을 재검토하여 참여자들 간에 경험들을 순환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의미요약을 포함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인 15개의 하위구성요소를 밝혀냈다.

4단계는 하위구성요소를 관련된 내용으로 통합하여 6개의 구성요소들을 재편성하고 작업치료 임상실습생들이 고시원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구조로 통합하였다. 이를 통하여 임상실습에 대한 구조적 맥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이 과정들은 작업치료 임상실습생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연구 윤리의 문제는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에서 모든 연구 대상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Annas, 1992).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적 진술이 매우 총체적이고도 자세하게 기술되어지기 때문에 양적 연구보다 참여자에 대한 섬세한 윤리적 고려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전에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연락처,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자발성 및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처리, 면담 내용의 녹음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 이후에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가 강제나 비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또한 연구자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였다.

4. 질적 연구의 엄격성에 따른 평가기준

Padgett(1998)는 질적 연구가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을 입증해내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질적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의 엄격성을 추구하였다. 질적 연구에 있어 엄격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 다만 질적 연구가 철학적 배경이나 연구방법, 연구목적 등에 있어서 양적 연구와 다르기 때문에 연구평가 기준에 있어 양적 연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은 학자들마다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와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네 가지 평가기준을 사용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양적연구의 내적 타당도로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재를 정확히 측정하였는가, 얼마나 실재를 반영하였는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임상실습 학생들의 고시원 생활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으며, 가능한 그들이 표현한 언어를 그대로 기술하였다. 둘째, 적용가능성은 적합성이라는 개념으로 양적 연구에서 외적 타당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구결과의 일반성, 대표성이다. 이를 위해서 참여자를 선정할 때 4년제 학생과 3년제 학생을 골고루 선정하였다. 또한 평소 학교생활에서 자취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을 모두 포함시켰다. 셋째, 일관성 평가는 양적 연구에서의 신뢰도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감각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현실 속의 사람들의 경험과 환경의 독특성을 강조하므로 공통적인 반복이 아니라 경험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을 선정할 때 저가형(월 15만원)에서 고가형(월 45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시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중립성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 과정과 결과에 있

어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가정이나 선 이해를 검토해 보는 것은 연구 실행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중립성의 실천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를 실행하기 전에 학생들의 사생활과 같은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학생은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III. 연구 결과

임상실습 학생들의 고시원 생활 경험은 연구자의 자유로운 상상적 변형을 통한 해석으로 86개의 의미단위로 구분-논문 지면상 28개의 의미단위 제시-하였으며 의미단위를 묶어 17개의 하위구성요소와 7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이것들은 고시원 생활의 현황, 고시원에서의 생존전략의 2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표 3에서 고시원 생활의 현황은 ‘좁은 고시원 공간의 버거움’, ‘공동생활의 어려움’,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함’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고시원에서의 생존전략은 ‘가족의 사랑으로 힘을 얻음’, ‘공동생활에서 생존전략을 터득함’, ‘낮선 생활에서 생존전략을 터득함’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연

구 참여자들의 고시원에서 생존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각각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공간적 맥락 속에서 참여자 개인의 경험에 따른 차이, 다른 개인과의 경험에 유사성을 제시하였다.

1. 고시원 생활의 현황

1) 좁은 고시원 공간의 버거움

고시원 공간은 0.5평 내외의 매우 좁은 공간으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즉 공간이 너무 좁아서 수면도 충분하게 취할 수 없는 삭막한 공간이고 이로 인해 피곤함이 누적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좁은 공간은 임상실습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아닌 이중적인 어려움을 부과하는 불편하고 답답한 환경이다. 창문이 없어 외부와 단절되고 협소한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 처량함을 느끼게 한다.

(1) 좁은 고시원 생활의 불편함

고시원은 자신의 습관대로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협소한 공간이었다. 생산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좁

표 3. 임상실습 학생들의 고시원 생활 현황에 대한 구성요소

차원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요약
고시원 생활의 현황	좁은 고시원 공간의 버거움	좁은 고시원 생활의 불편함	좁은 공간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감정적인 처량함과 답답함	좁은 침대로 인한 숙면의 어려움
			좁고 불편한 공간-답답함
			좁은 공간 안에서 느끼는 처량함과 벗어나고 싶은 마음
	공동생활의 어려움	식사해결의 어려움	공동식사로 자기역할이 증대
			열악한 주방 환경
		청결의 어려움	좁고 불편한 화장실과 샤워실 사용하기
		사생활보장이 어려움	방음이 안 되는 방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함	낮선 사람들과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낮선 사람들과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낮선 환경에서의 두려움	낮선 환경에서의 두려움
		위험에 대한 불안감	위험에 대한 불안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감정적 동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감정적 동요
		심리적 동요	혼자라는 외로움으로 우울해짐
			은둔적인 외톨이 생활

은 공간은 생활의 방식을 변화시켰고 이로 인해서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냥 와서 저녁 먹고 실습일지 쓰고 과제하고 바로 누웠어요. 누워 있는 것이 그래도 편하니깐 앉아 있는 것도 공간이 좁아서 불편했거든요.”

“좁아서 일어나면 선반에 항상 머리를 박았어요.”

“통로……. 복도 자체도 2명이 못 지나 다녀요. 2명이 지나다니려면 세로로 몸을 돌려서 다녀야해요.”

“2인실은 그나마 좀 앉아 있으면 도란도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1인실은 그게 안 되니까 한명은 의자에 앉아서 마주 보지 못하고 저쪽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한명은 침대에 앉아서 저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둘이 마주 보고 얘기하려고 하면 무릎이 부딪히죠.”

“만약에 책상에 앉으려면 의자는 빼야 하잖아요. 그림 의자를 빼고 나면 발 디딜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몸이 되게 빠근하고 전 원래 누워서 TV를 잘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기분 탓인지 아니면 환경 때문인지 누워서 TV를 보는 것 자체도 되게 불편했어요.”

(2)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감정적인 처량함과 행동의 변화

인간이 주위의 환경을 파악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창문이 없는 고시원의 경우에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 변화를 감지할 수 없게 함으로 행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간의 극단적인 협소함은 단지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인간의 행위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창문이 없어서 밖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항상 1층까지 내려갔다가 비오는 것 보고 다시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차라리 힘들어도 빨리 자고 일어나서 병원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혼자 살았으니까 밥을 거기서 안 먹었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고 해야 하나”

“한 장소에 서서 뒤돌아서 어떻게 행동하고 아니면 자리에서 서서 회전하는 움직임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게 답답해요.”

2) 공동생활의 어려움

공동생활을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생활의 규칙들이 마련된다. 고시원의 경우에 입실할 때 규칙과 질서를 지켰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이정봉, 2006). 하지만 고시원의 공동생활은 여태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낯선 생활이었다. 매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큰일이 되었고, 공동화장실과 욕실의 사용에 매우 불편하였으며, 이런 열악한 환경은 개인의 사생활도 보장받을 수가 없었다.

(1) 식사해결의 어려움

자신의 개별 공간이 아닌 공동공간에서의 생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위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외식을 선택하게 된다. 낯선 남녀가 함께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밥이 없으면 조미료, 식용유, 참기름 이런 게 별로 없어서 다 거의 인스턴트 아니면 그냥 바로 곧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3분 조리 식품과 같은 그런 것 사먹고 아니면 내려가서 간단하게 김밥 사먹던지 했어요.”

“남자들은 문만 열면 부엌인데, 저희는 건너가야 되니까 좀 그게 그랬죠. 그래서 부엌에 몇 번 간적도 없어요. 설거지 할 때 빼고는 거의 다 사먹고 이랬으니까요.”

“처음에는 시리얼 같은 것을 아침에 먹고 점심 거기서 먹고 저녁엔 애들이랑 먹고 놀고 그랬어요.”

(2) 청결의 어려움

청결은 좁은 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하는 매우 불편함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범될 수 있는 공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고시원이 아닌 깨끗하고 편리한 주변의 시설을 이용하였다.

“화장실과 샤워실의 문이 서로 반대로 열고 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문을 열면 샤워실문과 맞닿고, 샤워실문을 열어놓으면 화장실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하면 좀 참고 병원 가서 맘 놓고 불 일 봐요. 병원은 우선 화장실이 어딜 가든 많으니까. 가까운 곳도 있고 그랬으니까.”

“앞에서 샤워하고 있으면 또 들리고 화장실 문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거든요. 그럼 맘 놓고 못 봐요. 특히 대변 보고 나면 냄새나고, 차라리 공동화장실이 편했어요.”

(3) 사생활보장이 어려움

칸막이로 공간이 개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같은 공간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음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전혀 할 수 없다.

“우선 방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서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 싶은 건 밖에 나가서 하고 아니면 안에서 정말 조용히 이야기 했어요.”

“문 열어놓고 TV를 보면 슬그머니 와서 문을 닫고 가요. 아니면 ‘똑똑’ 해도 들리니까 벽 자체에 대고 똑똑해서 소리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닝콜도 그게 참 안 좋은 게 나 들으라고 한 건데 제가 이렇게 씻으려고 나가잖아요. 그럼 판방에서도 모닝콜을 듣고 애들이 다 일어나요.”

3)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함

고시원은 외국인 노동자나 도시 빈민층이 주로 거주하고 유동 인구가 많아 임상실습 학생들에게는 매우 낯선 공간이다.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이 있어 고시원에 있어도 편안히 쉴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에서 계속되는 고시원의 화재와 사건 소식들로 인하여 더욱 불안감이 증가되었고 비상시에 대처해야 하는 방법을 미리 점검하는 습관이 형성되게 된다.

(1) 낯섦에 대한 불안함

사회적으로 매우 낯선 사람들과 같은 공동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리적 긴장상태는 지속되어 불안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놓이게 된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고시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자신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였다.

“제가 아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노동하는 아저씨들도 되게 많고, 그니깐 되게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밖에……. 약간 무섭기도 해요. 문을 잠가 놓기는 하는데 그래도 약간 무서운 건 있었어요.”

“친해진 여자 친구는 개 옆에 중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개가 좀 밖에 소리 지르고 이상한 소리 내고 그래서 무서

웠대요.”

“다른 친구는 이상한 아저씨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해서 무서웠대요.”

“살인이 나면 도망갈 구멍이 없다. 구멍이 출입문밖에 없잖아요. 비상구가 없어요.”

“거기서 불나면 진짜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8층인가 7층인가 거기서 뛰어 내릴 수도 없잖아요.”

(2) 심리적 동요

임상실습지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고시원으로 들어왔지만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좁은 공간적 환경 속에서 심한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 우울함을 경험한다. 외로움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의 무기력한 생활을 하였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마냥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실습생이라는 상황이 심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거기 가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면박 받고, 옥먹고 이러니깐 그 스트레스와 설움이 복 받쳤던 것 같아요. 이틀째냐? 삼일째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이에요. “출근해?”, “어 해”, “우리 딸 오늘도 힘내고” 눈물이 갑자기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가끔 사람이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아~ 진짜 환경은 이게 아니다……. 그 때 울컥한 것은 실습보다는 고시원에 있으면서 그런 생활들이 좀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한테 옥먹고 잔뜩 진 빠져 우선 들어왔는데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 환경 속에서 나 혼자 멀찌감치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여기에서 다녀야하나 엄마가 통학하라고 하셨는데 힘들 것 같아서 이 길을 택한 것인데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내 공기만 돌아다니니까 계속 누워 있으면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여기 누워 있는 것도 좀 짜증났어요.”

“혼자 누워서 눈물을 막 똑똑 흘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내가 이 좁은 방에서 왜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도 들고 친구 방에 놀러갈 수 없었던 게 힘들었어요.”

“특별히 몸이 지치고 힘든 일은 없었는데 스스로 스트

표 4. 임상실습 학생들의 고시원에서의 생존 전략에 대한 구성요소

차원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요약
고시원에서의 생존전략	가족의 사랑으로 힘을 얻음	가족의 지지	부모님의 실습에 대한 걱정과 격려, 고마움을 느낌
		가족이 주는 안락감	주말은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가짐
	공동생활에서 생존 전략을 터득함	생활방식 바꾸기	자기만의 빨래방법을 개발
		환경에 적응하기	공동생활에서 내 것 챙기기를 배움
			공용 공간에 적응함
			좁은 공간에 적응함
		다른 실습생들과	실습생들과 마음 속 이야기하기
		어울려 유대감 형성	동료 실습생들과 어울리기
	낯선 생활에서 생존 전략을 터득함	힘들 속에서 탈출구 찾기	주말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러 활동을 함
		감정 표현	친구 만나 놀기
			지속적인 자기 암시 물건에 분노 표출

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우울했어요.”

2. 고시원에서의 생존전략

1) 가족의 사랑으로 힘을 얻음

이런 힘든 고시원에서의 생활과 실습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건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지지들이었다. 특히 좁은 고시원 공간에서 생활함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과 임상실습에 대한 격려, 고마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1) 가족의 지지

속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가족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씩씩한 척했고, 부모님도 많은 걱정이 되었지만 자녀가 약해질까 걱정이 되어 강하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말을 하였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에 힘들음을 견디게 되었다.

“고시원 생활이 힘들 텐데 실습하면서 힘들다는 말은 안 하고 잘하는 것 같다고 아빠가 말씀해주셨어요.”

“엄마, 나 불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말하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그런 헛소리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너 할일이나 하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엄마가 힘들어도 밥 좀 잘 챙겨먹고 건강 잘 챙겨라. 너

한테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 극복해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께서 택배로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2) 가족이 주는 안락감

평소에 같이 생활 할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는데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에 애증이 깊어지는 기회가 되었다. 내가 가장 어렵고 고생했을 때 이를 모두 받아주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서 실수를 해서 어려움이 있고 고시원 생활이 너무 힘들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평평 울었다가 엄마가 또 걱정되어서 ‘우리 딸, 힘내’ 라고 문자 보내주니까 또 그 문자에 울고 씩씩한 척하고 그랬어요.”

“저희 가족이 다 따로 누나랑 세집살림을 하는데요. 제가 내려가는 시간에 맞춰서 누나도 오고, 아버지도 빨리 들어오시고 어머니도 집에서 거의 파티를……. 파티까지는 아니지만 나가서 고생한다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가족들이랑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2) 공동생활의 불편함에서 생존전략을 터득함

이런 불편한 공동생활에서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사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꿀 수 없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손빨래도 하고, 빨래를 보관하는 방법과 더불어 세탁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터득하게 되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챙기는 욕심이 많아졌고,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공동생활을 수행하였다.

(1) 생활방식 바꾸기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나름대로 생존하는 방식을 터득하게 된다. 이는 귀찮고 낯설지만 공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활방식을 바꾸게 된다.

“8층인가 저희가 높이 있었잖아요. 내려가는 자체가 일어서서 아예 올라올 때 마트 가서 싸게 한가득 군것질거리를 사서 올라왔어요. 또 안내려가게요.”

“불편한 게 옷을 모아 놓을 수가 없어요. 대야 같은 걸 사자니 좀 그렇고 비닐봉지인가 거기에 둘둘 말아서 다 넣어놨어요. 빨고 거기다 다시 잠시 담아서 모으고 널고 그랬는데…….”

“주중에 힘들어서 안하니까 주말에 왕창 밀린 빨래를 하거든요. 그럼 줄을 서 있어요. 거기 다 그 다음에 누구라고 자기가 자리를 다 해놓아요. 그럼 또 그거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다 손빨래를 했어요.”

“자잘한 것은 손빨래를 다하고 바지 같은 것은 못 빠니까 친구할 때 같이 끼어서 빨 적이 있어요.”

(2) 환경에 적응하기

공동시설의 혼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다양한 생존전략과 좁은 공간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 필요한 생활방식을 터득하였다.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밥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앞에 줄을 서 있어요. 또 판 애들이 밥 퍼 갈까봐 그 앞에서 있다가 밥 퍼서 반찬해서 먹고 그랬어요.”

“저녁에 공부하다가 리포트 쓰고 이러다 시계를 딱 보면 한시예요. 한시면 내일 머리를 못 감을 것 같다 싶어서 먼저 감고 들어와서 마저 리포트 끝내고 스탬플러까지 딱 찍고 자요.”

“여름이었으니까 땀이 많이 나니까 그런 걸 다 모아갖고 빨래를 하고 나면 나는 끝낼 시간 맞춰서 갔는데 이미 판 애들이 내 세탁이 아직 안 끝났는데 꺼내고 자기네 세탁물을 넣어두고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 했어요”

“의자를 돌려서 등받이가 저쪽 벽으로 향하게 해서 나는 침대에 앉고 이렇게 다리를 쪽 펼 수가 없어서 의자를 식탁삼아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먹어요.”

3) 낮은 생활에서 생존전략을 터득함

두렵고 불안한 고시원 공간에서 실습이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입장이므로 낮은 공간에서 나름대로 생존하는 방식을 터득하게 된다. 가장 먼저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실습생들과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위로 받고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주말을 이용하여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탈출구를 찾게 되었다.

(1) 다른 실습생과 어울려 유대감 형성

이런 힘든 상황이 내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닌 실습을 하고 있는 여러 동료들이 경험하는 공통의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서로 위로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실습생간의 유대감이 증가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나 사실 이런 게 힘들고 너무 힘들었는데 너도 그렇지 않나, 나는 너한테 짐을 주기 싫었다, 야! 원래 이런 거는 같이 헤쳐 나가는 거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니깐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빨리 하자’ 등 이러는 거예요. 그땐 감동인 거예요. 자기도 힘들 텐데 나까지 신경써주니깐. 나중엔 서로 의지를 했죠. 둘이서.”

“혼자서든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같은 상황의 애들이 하나 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개네들도 나한테 다가오고 나도 모르게 개네들한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주말에 술 마시는데, 술 마시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마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술을 마시면 몽롱해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순간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애들이랑 즐기면서 울컥 하던 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4주 동안 혼자 거기에 있었으면 아마 진짜 못 견뎌낼 거 같아요.”

(2) 힘들 속에서 탈출구

실습생활과 고시원생활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주말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임상실습을 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행동을 조절하는 성숙함

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말에 고시원에서 밥 먹는 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맛집 찾아다니는 게 재미있었어요. 친구랑 쇼퍼하는 것도 좋았어요. 지하상가에 점포 하나하나 몇 시간을 돌아다녀도 힘들지 않고 재미있었어요.”

“주말에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학교 운동장에 가서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친해진 친구들과 금요일 밤부터 놀기 시작해서 삼일 동안 친구들과 계속 만나요. 주로 술을 먹다가 노래방도 가고 새벽까지 놀아요. 일요일에는 내일은 실습을 나가야 하니까 간단히 맥주 한잔정도 하고요.”

“평일은 힘들게 살다가 주말에는 고시원을 벗어나서 화끈하게 놀니다. 정말 일요일 하루만큼은 여자 친구를 만나거나 집에 내려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평일에는 게임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거든요.”

“그 답답한 걸 우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술을 마시고 수다를 떨고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3) 감정 표현

옆에 동료들과 서로 대화로 지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서로 도왔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밖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였다.

“자꾸 챙겨주고, 나도 언니한테 기대게 되고 그러니깐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고 힘들 때 같이 ‘끝나면 끝이지, 쫘만 참아. 2주 남았어.’ 이러는 거예요.”

“하루하루 세요. 이제 토요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깐 삼일 남았어. 월요일, 화요일은 한주의 첫 시간이니깐 괜찮아요. 그런데 수요일부터는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수요일은 그냥 참아요. 목요일은 그래, 내일이 금요일이니깐.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이제 내일이야 내일!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세는 거예요.”

“원문으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잘 되지 않으면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책상도 툭툭 치고 책도 던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 고시원 생활의 공간적 맥락에 따른 구조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작업치료 임상실습 학생들이

고시원 생활의 경험은 고시원의 열악한 공간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임상실습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므로 참고 견디면서 나름의 생존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경험의 구조는 경험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작업치료 임상실습생들의 고시원 생활 경험의 구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작업치료 임상실습 학생들은 좁고 협소한 고시원 공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치량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공간의 협소함과 함께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공간적인 배치로 인해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위생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방음이 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낯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므로 위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기는 심리적 동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맥락에서 힘든 경험으로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임상실습을 그만 둘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실습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고시원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게 되는데 공동생활에서 내 것을 챙기는 기술과 생활방식을 바꾸어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터득하게 된다. 또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동료 실습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유대감을 강화하고 힘들 속에서 취미활동 및 친구만나기를 통하여 탈출구를 찾게 된다. 지속적인 자기 암시와 감정 표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전체적 맥락 속에서 작업치료 임상실습생들의 고시원 생활 경험에 대한 공간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즉 이들의 경험은 고시원이라는 좁고 낯선 공동생활 공간에서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스트레스이고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생존전략을 자신의 내적인 자원을 활용하거나 외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고시원 생활에 적응하게 된다. 대상자들의 경험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고시원 경험에 대하여 도식적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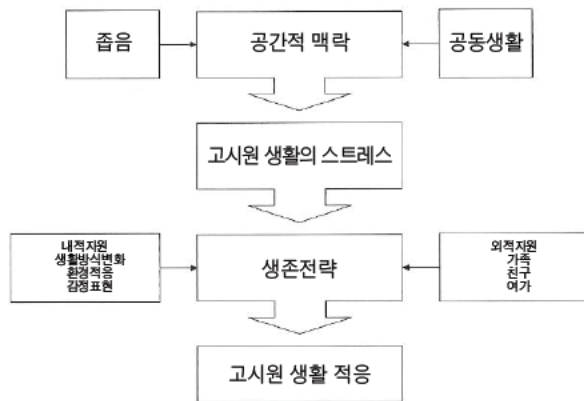


그림 2. 공간적 맥락 속에서 고시원 생활 경험

IV. 고 찰

임상실습교육의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질적인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Costa, 2004; Provident & Joyce-Gaguzis, 2005).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작업치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치료 원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작업치료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김진경과 강대혁, 2004). 이렇듯이 작업치료학생 임상실습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작업치료학자가 많이 생기면서 연간 실습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실습기관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세계작업치료사연맹으로부터 교과과정의 인증을 받았거나 받기 위한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총 실습시간이 1,000시간 이상을 수행되어야 하는 기준에 맞추는 경향이 있어 임상실습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정민예와 차유진, 2009).

국내에서 작업치료 임상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대학병원들은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몇 개의 지방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작업치료(학)과가 있는 대학들은 서울, 경기도가 아닌 지방에 배치되어 있어 실습에 나가려면 일정기간동안 학교의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 연고가 있는 학생들은 안정된 곳에서 실습을 수행할 수 있지만 연고가 없는 많은 학생들은 주로 병원 근처의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생활 환경적인 요인은 임상실습의 성공적인 수행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작업치료학생들의 임

상실습지가 아닌 일상의 생활공간인 고시원 생활을 내부자적 관점으로 살펴봄으로 임상실습 학생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안전한 임상실습 지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실시한 본 연구 결과 좁은 고시원 공간의 버거움에서 한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지 않는 고시원 방은 활동의 제약을 가하고 숙면의 어렵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처량함과 답답함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정봉(2006)의 연구에서 고시원의 공간이 작기 때문에 개인 짐은 처치가 곤란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고시원의 공간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공간이고 이로 인해서 혼자만 고립되게 되어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켜 울거나 무기력감에 빠지게 만들었다. 매일 힘든 작업치료 임상실습을 마치고 쉴 수 있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지만 반갑게 맞아줄 사람도 없고, 혼자라는 외로움이 지속되어 우울감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좁은 공간을 가진 저가형 고시원은 0.5평 남짓의 방에 대각선으로 누워서 잠을 자야하는 초소형이며, 병원주변의 가격대는 32~45만원 수준이다(한민, 2008).

고시원은 임시 칸막이가 개인생활을 보장하는 도구라면, 주방, 화장실, 세면장은 사람들이 고시원에서의 생활을 '공동생활'로 느끼도록 하는 공간이다. 바닥은 지저분하고 항상 물이 고여 있고 변기에는 담뱃재가 이곳저곳에 널려 있다(이정봉, 2006). 작업치료 임상실습생들이 가장 낮설고 어려워하는 것이 이런 공동생활이다. 고시원에서 밥은 지원되지만 반찬은 없고 주방은 너무 좁고 조리 용품도 마땅한 것이 없어 식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화장실은 씻을 때 팔을 길게 뻗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았다. 임시 칸막이는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임상실습은 중도포기 없이 끝까지 참고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생활의 불편함을 극복하는 생존전략으로 학생들은 나름대로 생활방식을 바꾸어 살아가고 있었다. 예로, 손빨래를 하고 빨랫감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였고 샤워실이나 화장실의 복잡한 시간을 피해서 일찍 일어나기와 미리 머리감고 자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잘 적응하고 있었다.

고시원은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갖추

어저 있지 않고 안전 기준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신윤동욱, 2008). 이런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소식과 화재는 학생들을 극도의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여학생들은 낯선 사람과의 공동생활로 인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중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각종 도난 사고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 있어 생활에서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이런 위험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실습생과의 동료 관계 맺거나 주말을 이용한 친구 만나기와 각종 여가활동을 통하여 가능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가족의 소중함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고 임상 실습지도 선생님의 고시원 생활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실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내적가치는 학생들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실습을 통해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상실습들의 고시원 생활은 쪽방 거주자의 생활과 매우 흡사하게 전개된다. 임상실습 학생들은 이런 형태의 생활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학생들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나 생존전략이 명확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였다. 기존의 임상실습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실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였지만 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생활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임상실습교육에 관한 연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관형, 장용규와 안현미(2000)는 지방출신 교육대학 남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취나 고시원에서의 생활을 통해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과 안락한 휴식의 어려움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로 인해 방과 후에 불필요한 배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은 고시원생활을 하는 임상실습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시원 생활을 선택한 임상실습 학생들은 실습 장소에서 겪는 긴장감 이외에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임상실습의 교육적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김정은 등, 1988). 그러나 고시원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작업치료 임상실습생들은 외국인 노동자나 도시 빈민층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진 이들과 생활하면서 현실감 있는 사회적 인식과 일상에서 다양한 작

업 경험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또한 고시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생존전략을 터득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내적 성장 및 생활인으로서 강인함을 배우는 긍정적인 영향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작업치료 임상실습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면, 단기적 차원에서 대학(교)은 임상실습생들에게 위험대비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응급상황대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지역사회 임상실습기관 개발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기관에서는 전문적 임상교육 뿐 아니라 임상실습생들이 임상교육과정을 잘 이수하도록 그들의 심리적 지원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차원에서 관련 단체 및 대학에서는 작업치료 임상실습생을 위한 이용자 실비시설을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임상실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의의는 작업치료 임상실습생들의 경험을 임상실습지가 아닌 일상에서의 생활공간인 고시원에서의 생활을 내부자적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결과를 기반으로 각 대학에서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임상실습 계획과 지도과정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 고시원 생활에 대한 경험의 적절성이 충족되고, 의사표현을 잘할 수 있는 목적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시원 생활의 경험이 임상실습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이 분석되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고시원 생활이 임상실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 임상실습생들의 고시원에서의 일상생활 경험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86개의 의미단위를 구분하였으며 의미단위를 묶어 14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6개의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작업치료 임상실습생들은 낯선 고시원에

서의 생존을 통하여 좁은 고시원 공간의 버거움', '공동생활의 어려움',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함', '가족의 사랑으로 힘을 얻음', '공동생활에서 생존전략을 터득함', '낮선 생활에서 생존전략을 터득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작업치료 임상실습생들의 고시원에서의 구체적인 생존 전략은 첫째,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있었다. 이런 지원이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임상실습 지도 선생님의 따뜻한 말과 고시원 생활에 대한 이해가 실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방식 바꾸기, 환경에 적응하기로 공동생활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있었다. 임상실습은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참고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적응하였다. 손빨래를 하고 빨랫감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샤워실이나 화장실의 복잡한 시간을 피해서 일찍 일어나기와 미리 머리감고 자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잘 적응하고 있었다. 셋째, 다른 실습생과의 동료 관계 맺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있으며, 주말을 이용한 친구 만나기와 각종 여가활동을 통하여 생존방법을 터득해 나갔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업치료 임상실습생들의 고시원에서 생활실태 및 어려움, 생존전략을 이해할 수 있었고,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수, 부모, 임상가들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작업치료의 미래가 될 작업치료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임상실습생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임상실습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환경 및 일상생활 등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남행. (2006). 교육실습이 예비교사의 신념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김미령. (2008). 쪽방거주자의 스트레스 원과 극복자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4), 126-151.

김영숙. (2000).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3(1), 147-160.
 김정은, 노상옥, 이정선, 이주미, 이주연, 정경이. (1988). 간호학생의 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 실태조사. 연세간호, 12, 42-76.
 김진경, 강대혁. (2004). 작업치료(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2(2), 91-103.
 김진경, 박소연, 이택영, 강대혁. (2004). 작업치료(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2(1), 69-82.
 김진호, 양정훈, 석호태. (2009). 고시원 화재시 복도 및 비상구 폭에 따른 피난 소요시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9(1), 133-138.
 김혜숙. (2002).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 관계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6(1), 67-76.
 신경림. (1996). 간호학생의 첫 학기 임상실습체험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8(1), 156-168.
 신윤동욱. (2008). 21세기 쪽방, 고시원 코리아: 방화·살인 사건의 비극적 무대, 수급권자·독거노인에 이주노동자까지 고단한 삶을 사는 곳. 한겨레21, 733, 44-46.
 이관형, 장용규, 안현미. (2000). 교육대학 남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만족도 연구. 학생생활연구, 26, 111-145.
 이미자, 김경미, 이재신, 이택영, 강대혁, 이경식 등. (2004). 작업치료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교육 현황 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2(2), 105-117.
 이정봉. (2006). 빈곤의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고시원 거주 도시빈곤층의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부천.
 이종원. (2009). 고시원 평면유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구.
 이종원, 이호영, 홍원화. (2009). 고시원 평면유형별 소방환경 실태조사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11), 365-372.
 이창효, 이승일. (2010). 서울시 1인 가구의 밀집지역 분석과 주거환경 평가. 서울도시연구, 11(2), 69-84.
 이향숙. (2007). 지역사회중심 뇌졸중 작업치료프로그램

- 을 통한 중재효과와 참여학생들의 만족도.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5(2), 105-114.
- 이향숙, 노종수, 차정진, 김소란, 김슬기, 박상글 등. (2010).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따른 전공취업에 대한 인식변화.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1), 107-121.
- 정민예, 차유진. (2009). 국내작업치료 인력현황 및 수급 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7(4), 113-126.
- 정원오, 남기철, 장기성. (2004). 도심지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 보고서: 서울 도심지 고시원을 중심으로. 서울: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최미경, 전예숙, 홍원주, 김순경, 김동희, 김애정 등. (2004).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 및 평가도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3(2), 373-380.
- 최진숙. (2005).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전·후 인식비교. *아동학회지*, 26(4), 113-123.
- 하성규. (2007). 불량주거 실태와 정책과제: 쪽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4, 123-168.
- 하성규, 남원석, 김선미, 전홍규, 서종균, 신명호 등. (2005).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2. 서울: 한국도시연구소.
- 한민. (2008). 1인 주거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복층평면 연구계획안.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 허소영. (2010). 쪽방지역에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삶의 경험. *한국노년학*, 30(1), 241-260.
- Annas, G. (1992). The changing landscape of human experimentation: Nuremberg, Helsinki and beyond. *Journal of Law-Medicine*, (2)2, 119-140.
- Costa, D. M. (2004). *The essential guide to occupational therapy fieldwork education*. Bethesda, MD: AOTA Press.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Thousand Oaks, CA: Sage.
- Dunn, W., & Cand, E. (1988). The national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analysis: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competenc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2(9), 721-728.
- Giorgi, A. (2002). The question of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33(1), 1-18.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 Morse, J. M., & Field, P. 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 Provident, I. M., & Joyce-Gaguzis, K. (2005). Brief report—creating an occupational therapy level II fieldwork experience in a county jail setting.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9(1), 101-106.

Abstract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Gosiwon Life During Fieldwork

Hwang, Sang-Hui^{*}, M.Sc., O.T., Jeon, Byoung-Jin^{**}, Ph.D., O.T.,
Choi, Jeong-Sil^{***}, M.Sc.,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atholic Sangji Colleg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Juseong College

Objective : In the fieldwork process, experiences of students living in the Gosiwon after finishing work in the hospital greatly affected overall practice. The study on everyday life of the Gosiwon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better understand students' fieldwork experiences. The question of the study was "what are daily survival strategies for fieldwork students who lived in Gosiwon?".

Methods : In 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students who finished occupational therapy fieldwork three and four times. Data collection ended when new content was not created any longer. The duration was from Oct, 2008 to Jan, 2009. To protect ethical aspect of the subjects, they submitted the written consent with records such as protection about rights to volunteer in the survey and stop their participation, anonymity for secrecy, memo and recording about interview contents.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Giorgi' s four specific procedures.

Results : The results of the study consisted of 86 semantic units, 14 sub-components, and 6 components, and components about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survival in the unfamiliar and desolate Gosiwon were as follows. There were 'burden of narrow Gosiwon space', 'difficulty of common life', 'experience of serious psychological stresses', 'obtaining of power from family' s love', 'understanding of the survival strategy in the common life', and 'understanding of the survival strategy in the unfamiliar environment'.

Conclusions : Fieldwork students used their own various strategies to survive the Gosiwon, and diverse approaches should be sought to support them.

Key words : Fieldwork, Giorgi, Gosiwon, Survival strategy